교회소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2003년 8월호

사진: 크레이그 더모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마조리 힝클리 자매가 경청하며 미소를 짓는 가운데 가족 생활의 추억들을 나누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지난 4월 결혼 66주년을 기념했다.

결혼 66주년을 맞은 힝클리 대관장 내외

돈 엘 설리

힝클리 가의 길 건너 편에서 자란 마조리 페이는 그와 절친한 친구가 된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인 1937년 4월 29일 결혼할 당시, 고든 비트너 힝클리는 자신의 평생 과업이 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가 갈수록 더욱 소중해지고 깊어졌다. 오늘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영원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과서와 같은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2003년 3월 29일에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결혼 66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그들의 결혼과 관련한 서로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의 기초는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 잡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만일 남편이 자신을 조금만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교회는 물론 세계 곳곳에 더욱 행복한 가정이 넘쳐 날 것입니다."

힝클리 자매는 힝클리 대관장이 몸소 그 권고를 실천하여 생활했고, 끊임없는 성장과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감사를 표현했다. 그의 노력은 "제가 진정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해주었어요."라고 힝클리 자매는 말했다. 힝클리 자매는 남편이 교회 일로 인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여준 것에 감사했다.

"서로를 개인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 상호 존중은 이 세상에서 진실된 온갖 변화를 가져 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며 재능과 관심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는 어렸을 때 길 건너편에 살던 이웃 소녀인 마조리 페이의 재능을 눈여겨 보았다. 대학에 다니던 20대 초반 그들은 교제를 시작했다. 선교 사업을 떠나는 그를 보면서 온전히 지지했지만 "최고의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인" 그를 그리워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see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1996], 41, 58)

1937년 결혼할 당시 그는 이미 교회 라디오, 공보, 선교책자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2년간 일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한 철도 회사에서 일하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든 비 힝클리는 1958년에 총관리 역원인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 받을 때까지 교회 책자와 시청각 자료를 발간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는 196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다.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캐스린 힝클리 바니스, 리차드 고든 힝클리, 버지니아 힝클리 피어스, 클락 브라이언트 힝클리, 그리고 제인 힝클리 두들리 이렇게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그들은 또한 스물 다섯 명의 손자 손녀와 서른 다섯 명의 증손자 증손녀를 두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가정의 밤이 자녀들이 성장하던 시기에 언제나 가족의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회상했다.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 부름으로 집을 비울 때면, 힝클리 자매가 가정의 밤을 이끌었다. 오늘날에도 힝클리 대관장 내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전체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다. 손자들과 증손자들은 힝클리 대관장 내외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안다. 또한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이 가족의 전통이 되었다.

"우리 가족이 받아 온 풍성한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일생 동안 훌륭한 여성과 함께 살며 자녀들이 기여를 할 줄 아는 행복하고, 유능한 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

선교부 세 곳 신설, 두 곳 통합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교부 세 곳을 신설하고, 두 곳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을 승인했다.

칠레 콘셉시온 남 선교부가 칠레 콘셉시온, 칠레 오소르노, 칠레 산티아고 남 선교부의 재조직으로 인해 신설되었다.

조지아 애틀랜타 북 선교부는 조지아 애틀랜타 선교부와 조지아 메이컨 선교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남 선교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와 멕시코 레온 선교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독일 라이프치히 선교부는 독일 베를린 선교부와 통합되었다. 이 선교부는 베를린 선교부의 이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은 7월 1일자로 발효되며, 선교부는 총 337개로 늘어난다.

조지아

조지아 애틀랜타 선교부
조지아 애틀랜타 스테이크
조지아 콜럼버스 스테이크
조지아 존스보로 스테이크
조지아 파우더 스프링스 스테이크

조지아 메이컨 선교부
조지아 올버니 스테이크
조지아 오거스타 스테이크
조지아 더글라스 스테이크
조지아 메이컨 스테이크
조지아 서배너 스테이크

조지아 애틀랜타 북 선교부(신설)
조지아 릴번 스테이크
조지아 마리에타 동 스테이크
조지아 로즈웰 스테이크
조지아 슈거 힐 스테이크

독일

독일 베를린 선교부
독일 베를린 스테이크
독일 드레스덴 스테이크
독일 라이프치히 스테이크
독일 뉴브란덴부르크 지방부

칠레

칠레 콘셉시온 남 선교부
칠레 앙골 스테이크
칠레 로스 엔젤레스 북 스테이크
칠레 로스 엔젤레스 남 스테이크
칠레 상 페드로 스테이크
칠레 탈카우아노 스테이크
칠레 탈카우아노 콜론 스테이크
칠레 탈카우아노 우알펜 스테이크
칠레 테무코 카우틴 스테이크
칠레 테무코 니엘롤 스테이크
칠레 카로넬 지방부
칠레 레부 지방부
칠레 누에바 톨텐 지방부
칠레 빅토리아 지방부

칠레 콘셉시온 선교부
칠레 칠란 스테이크
칠레 칠란 누블레 스테이크
칠레 콘셉시온 스테이크
칠레 콘셉시온 안달리엔 스테이크
칠레 콘셉시온 치구아얀테 스테이크
칠레 콘셉시온 우알퀴 스테이크
칠레 쿠리코 스테이크
칠레 펜코 스테이크
칠레 탈카 엘 미라도 스테이크
칠레 탈카 리카이 스테이크
칠레 리나레스 지방부
칠레 파랄 지방부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
칠레 코이아이키 스테이크
칠레 오소르노 스테이크
칠레 오소르노 라우에 스테이크
칠레 푸에르토 몬트 스테이크
칠레 푼타 아레나스 스테이크
칠레 발디비아 스테이크
칠레 발디비아 칼레 칼레 스테이크
칠레 칠로 지방부
칠레 라 유니온 지방부
칠레 로스라고스 지방부
칠레 빌라리카 지방부

칠레 산티아고 남 선교부
칠레 랑카구아 스테이크
칠레 랑카구아 투파우에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엘 보스케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그란 아베니다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라 반데라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라스 아라우가리아스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오히긴스 스테이크
칠레 산티아고 산 버나도 스테이크

칠레 뷰인 지방부
칠레 산 페르난도 지방부
칠레 산타 크루즈 지방부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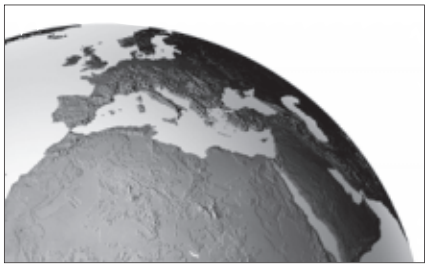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데펜덴시아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로마스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미라도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목테주마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레포르마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유니온 스테이크
멕시코 테픽 스테이크
멕시코 나야릿 지방부
멕시코 푸에르토 발라르타 지방부

멕시코 레온 선교부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스테이크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자르디네스 스테이크
멕시코 셀라야 스테이크
멕시코 이라푸아토 스테이크
멕시코 레온 스테이크
멕시코 산 루이스 스테이크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 후아레스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남 선교부(신설)
멕시코 모렐리아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트라퀘파퀘 스테이크
멕시코 과달라하라 빅토리아 스테이크
멕시코 자모라 스테이크
멕시코 아캄바로 지방부
멕시코 시우다드 구즈만 지방부
멕시코 콜리마 지방부
멕시코 만자닐로 지방부
멕시코 우루아판 지방부 ■

신임 선교부장



100명이 넘는 신임 선교부장이 2003년 7월 1일자로 부름을 시작했다.

선교부-신임 선교부장

한국 서울-셀러스, 브라이언 엘

그리스 아테네-루드윅, 존 비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애덤스, 리처드 엘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서-스미스, 브루스
네브래스카 오마하-갈랜드, 로저 디
노르웨이 오슬로-말름, 퍼 지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마비, 아이 대니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노엘, 로버트 이
뉴욕 뉴욕 남-매로우, 제프리 알
뉴욕 유티카-뮬런, 토마스 에스
대만 타이베이-퍼킨스, 앤소니 디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코니쉬, 제이 데븐
독일 베를린-코피쉬케, 에릭 더블류 에이치
러시아 로스토프-오메이스터, 앨버트 와이
러시아 모스코바 남-솔로메인, 빅토 에이
마다가스카르안타나나리보-하몬, 데이비드 케이
매사추세츠 보스턴-톰슨, 폴 에이치
메릴랜드 볼티모어-캐넌, 리처드 비
멕시코 과달라하라 남-소리아노, 후안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미크, 스티번 시
멕시코 몬테레이 남-이반스, 티모시 에스
멕시코 에르모시오-홀드웨어, 스티번 엔
멕시코 탐피코-커티스, 딘 에이치
몬태나 빌링스-프레이저, 알 렉스
미시시피 인디펜던스-젠슨, 제이 리스
미시시피 잭슨-블레이크, 데일 알
미크로네시아 괌-펄시퍼, 필립 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로저스, 덴턴 알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오소노, 가마리엘
베네수엘라 발렌시아-구에라, 마리오 이
벨기에 브뤼셀/네덜란드-해밀턴, 케빈 에스
불가리아 소피아-존슨, 제프리 피
브라질 벨렘-레이튼, 로버트 엘
브라질 벨로리존테 동-라이스, 마르코 에이
브라질 벨로리존테-메럴, 로버트 케이
브라질 살바도르 남-에이둑카이티스, 넬슨 시
브라질 상파울루 동-어리, 제임스 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언숀, 크레익 더블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북-안투네스, 베네디토 에스
사우스다코타 래피드시티-아스거톱, 러셀 티
상아해안 아비장-노비, 리처드 엘
스위스 제네바-네이돌드, 스테판 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브라이언스, 윌리엄 시
스페인 라스팔마스-크레익, 로리 비
스페인 마드리드-데이비스, 로날드 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왓슨, 존 제이
스페인 빌바오-지빅, 클라우디오 디
싱가포르-라킨스, 게리 엘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와취만, 루이스
아르헨티나 아델라이데-스트롱, 알 스콧
아이다호 포커텔로-브릭넬, 콜린 에이치
아이티 포르토프랭스-길레스, 커티스 엘
영국 런던 남-키너슬리, 리처드 비
영국 런던-뱅크스, 베냐민 이
영국 버밍엄-로리, 챨스 레이먼드
오클라호마 털사-닐슨, 더블류 더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못츠쿠스, 에이 로버트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메리노, 호세 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헤레라, 헤르난 아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베탄코트, 조지 에프
워싱턴 스포캔-루들로, 케빈 엘
워싱턴디시 남-브렛징, 리처드 티
웨스트 인디스-도렌보쉬, 헨드릭
유타 오그든-듀스너브, 윈 알
유타 프로보-메럴, 알 브루스
일리노이 시카고 북-로울리, 필립 비
일본 동경 북-아이어링, 헨리 제이
일본 후쿠오카-밀스, 커렌드 엘
자메이카 킹스턴-터너, 르보이 알
조지아 애틀랜타 북-스미스, 에드워드 디
조지아 애틀랜타-런드, 스티번 제이
중국 홍콩-옹, 테드 에이치
짐바브웨 하라레-젠킨스, 조셉 에이
칠레 비냐델마르-앤더슨, 달 제이
칠레 산티아고 동-윌콕스, 브래들리 알
칠레 콘셉시온 남-마이클 르보이 호킨스
캄보디아 프놈펜-타워, 데이비드 제이
캐나다 위니펙-메이언, 멜빈 제이
캐나다 캘거리-가드너, 할 에이
캐나다 핼리팩스-거니, 에이 브라이스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알링턴, 캐먼 엘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리, 로버트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웨그스태프, 제럴드 엘
캘리포니아 아카디아-버그스텟, 스티번 더블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바우만, 로버트 엘
코스타리카 산호세-아코스타, 마뉴엘 에프
콜롬비아 보고타 남-만틸라, 에드가 에이
콜롬비아 보고타 북-라레아, 호세 브이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왈드럼, 스콧 지
태국 방콕-핸슨, 스콧 에프
텍사스 맥알렌-루이스, 케이 엠
텍사스 휴스턴 남-리, 페드릭 제이
파라과이 아순시온-가바렛, 에두아르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타라휘티, 호리 테이라
페루 리마 남-잭맨, 티오도르 에스
페루 리마 중앙-웨스턴, 스펜서 엘
페루 피우라-후커, 세사 에이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크럼프, 셔먼 엠
포르투갈 리스본-아모림, 파울로 시
포르투갈 포르토-그린, 웨스 알
플로리다 탬파-허친스, 케네트 지
필리핀 바기오-토마스, 디 레이
필리핀 바콜로드-비둘프, 에드윈 시
헝가리 부다페스트-클레멘트, 더글라스 알
호주 시드니 남-엘머, 존 지 ■

성전 합당성과 성전 참석을 격려함

대관장단은 2003년 3월 11일자로 다음 서한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 성찬식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전 수가 증가한 것에 감사드리고, 성인 회원들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아 좀더 자주 성전을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과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회원들은 여가 활동 대신 성전을 방문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 의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새로운 교회 회원들과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여 침례와 확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봉사함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돕기를 권고드립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원들에게 낮에 좀더 자주 성전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특히 낮에 교통편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 그들에게 교통편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중요한 기본적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참석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충실함을 배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교회가 에티오피아로 구호품을 보냄

리사 앤 잭슨

1980년대 중반부터 에티오피아에 만연해 온 가뭄을 맞아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는 기아에 빠진 아프리카 국가에 3,000톤 이상의 음식을 기부해 왔다. 구호물자 중에는 심각한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죽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기부는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러분의 조직이 제공하는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USAID/Ethiopia(에티오피아에 대한 미국 원조 기구)의 책임자인 메리 루웰런 씨는 말한다. 여러 구호단체들이 성인들을 위해 상점이나 지역 사회에서 구입 가능한 곡물 식품을 제공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천백만 명이 현재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다. 추가로 삼백만 명이 보호 대상에 올라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46만 톤이 들것으로 예상한다.

교회는 오랜 전통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Atmit이란 식품을 생산해 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식품을 "영양죽"이라 부른다. Atmit은 더 이상 곡물을 소화할 수 없는 노인이나 심각한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 귀리와 분유를 주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봉사의 직원들이 그 조리법을 받았을 때, 복지과 식품 생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그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영양소들이 조리법에 따라 알맞은 비율로 섞이도록 브리감 영 대학의 영양사들이 투입되었

사진 촬영: 다멜 빌스, 교회 공보실 제공

구호 요원들이 기아의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가뭄에 말라버린 에티오피아의 경작지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가뭄과 기아는 최근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사진 촬영: 데일 빌스, 교회 공보실 제공

게리 플레이크 형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최근의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고 있다. 플레이크 형제는 3,000톤이 넘는 교회의 식량 원조품을 전달하고자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로 갔다.

사진 촬영: 데일 빌스, 교회 공보실 제공

한 어린이가 에티오피아의 구호요원들이 나눠준 Atmit이라는 영양 강화 죽을 먹고 있다. 교회는 귀리와 분유를 주원료로 한 제품인 Atmit 160톤을 생산하여 기증했다.

다. 약 160톤의 Atmit이 생산되어 에티오피아로 선적되었다. 교회는 에티오피아가 처한 최근의 기아 사태에 Atmit을 제공한 첫번째 조직이다.

"웰페어 스퀘어(복지 광장)에 있는 우리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자원이 있었기에 Atmit을 일주일 내에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교회의 인도주의적 위기 관리 책임자인 게리 플레이크 형제는 말한다. 플레이크 형제는 가톨릭 구제 위원회와 Project Mercy(사랑의 프로젝트)와 협력 하에 교회의 식량 원조품 전달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로 갔다.

또한 교회는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Unimix라는 옥수수/메주콩 제품 3,000톤을 구매하여 기부했다. 단백질 함유 식품은 임신부나 수유기의 산모 또는 어린이와 같이 기아에 특히 약한 사람들이 먹는 통옥수수나 밀의 보조식품으로 사용된다.

이 원조는 교회의 현행 위기 대처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약 20년 전에 교회는 최초로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기부를 통해 만연한 가뭄과 기아로 허덕이는 에티오피아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에 원조품을 보냈다. 1985년 초 교회 회원들은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들을 위해 금식을 했고 그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후한 금식 헌금을 기부했다. 금식을 통해 거둬진 6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에티오피아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하는 구호단체들에게 전해졌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는 위기 대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최근에 플레이크 형제를 따라 에티오피아로 식량을 전달하러 갔던 교회 대변인인 데일 빌스 형제는 "주고 받는 원리에 기초하여 성장한 복지 프로그램은 언제나 준비와 봉사를 강조해 왔다"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에티오피아에 대한 기부로 약 22만 명이 5개월간 Unimax 보조식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수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Atmit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고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라고 Project Mercy의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마타 개브리-차딕 씨는 말한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교회 회원들의 기부와 관대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라고 플레이크 형제는 강조한다. "이 일들이 교회 회원들의 희생, 관용, 사랑,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하는 일의 영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

대회 통역의 숨은 이야기

그레그 힐

연차 대회 통역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지난 4월 연차 대회의 통역이 컨퍼런스 센터의 새로운 시설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2002년 10월 이전까지는 모든 통역이 템플 스퀘어에 있는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지하에서 이루어졌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회의 영은 한결 같다고 사모아어 통역을 담당한 여섯 명 중 한명인 수아 페아 형제는 말한다.

"이 부름은 제가 받은 부름 가운데 가장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며, 마음을 고양시키는 부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수행한 부름에 대해 말했다. "저는 이 부름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 대회를 앞둔 목요일 통역 시설 투어 중 가진 인터뷰에서, 페아 형제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위한 예

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이 책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 집니다."

새로운 통역 시설은 강당 뒷편 벽 뒤에 위치한 58개의 통역실과 공개 회의실로 이뤄져 있다. 비록 통역 부스는 제한된 공간 내에 서로 붙어 있지만, 각 언어의 통역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방음 시설이 잘 되어있다. 대회 기간 중에는 450여 명의 통역사들이 봉사한다.

각 언어마다 통역 부스 옆에 평가자들의 책상이 마련되어 있다. 통역 부스 내부는 통역사 두 명이 탁자를 놓고 앉기에 공간이 충분하다. 이들 사이에는 콘트롤 스위치와 대회 방송을 수신 받는 모니터가 있다. 통역사들은 각자 말씀을 들을 헤드폰을 착용한다. 한 통역사가 마이크에 대고 통역을 한다. 통역 부스 밖에서는 두 평가자가 책상에 앉아 헤드폰을 쓰고 통역 내용을 듣는다.

태버내클에서 컨퍼런스 센터로의 이전은 축복이라고 교회 번역 서비스 책임자인 폴 컨 형제는 말한다. 컨퍼런스 센터는 최첨단 설비에, 보다 현대적이고 훨씬 크고 더욱 뛰어난 디지털 음질을 자랑한다. 예전에 태버내클의 지하에서 통역을 할 때는 일반인의 통행이 많았지만, 컨퍼런스 센터의 통역 공간은 전적으로 통역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컨 형제는 말한다. 디지털 시설을 태버내클에도 설치해 통역사들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통역사의 수가 많아지면, 어떤 시설을 사용하든 간에, 경건 유지나 통역 인력 배치 등과 같은 약간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컨 형제는 말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될 것이다.

"혼잡 통제의 비결은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컨 형제는 말했다. 부부 선교사들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통역 지역에서의 활동을 감독한다. "부부 선교사들은 문제를 진정시키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을 압니다."라고 컨 형제는 말한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의 현지 번역부는 Blue Box Codec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통역한다고 컨 형제는 밝혔다. 전화선을 통해, 이들 나라의 통역사들은 대회 말씀의 음성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통역을 컨퍼런스 센터 장비를 통해 인공 위성으로 송신하는 것이다. 국제 전송은 약 1초가 걸린다고 그는 말했다.

4월에 열린 173차 연차 대회는 56개 언어로 방송되었다.

2003년 4월 12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사진 제공: 교회 공보실

통역사들은 연차 대회 기간 중 컨퍼런스 센터의 새로운 통역 시설에서 봉사한다. 4월 연차 대회 기간 동안 첨단 시설을 통해 거의 60개 언어로 전세계에 방송되었다.

정정

"입양 공익 광고 방송, 게브리엘 상 수상"(2003년 3월호 "교회 소식")이라는 기사는 말일성도 가족 서비스가 "입양이 하나의 사랑의 행동임"을 장려하며 "마음을 비우고 용기를 내어 입양을 선택한 생모"를 인정한다고 했다. 교회는 생부와 생모가 미혼이고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입양을 장려한다.

"9월 11일을 기념하는 행사들"(2003년 1월호, "교회 소식")이라는 기사에서, 워싱턴 디 시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 프로그램들이 잘못 보도되었다. 데이비드 글렌 해치는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라*는 작품으로 콘서트를 두 차례 가졌다. 워싱턴디시 몰몬 합창단과 남 버지니아 대학교의 관현악단이 객원으로 참여했고, 독창으로 에리카 호그, 리즈 스미스, 데이비드 벤슨이 노래했다.

2003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원하면 이번 호의 어린이 란 4쪽과 5쪽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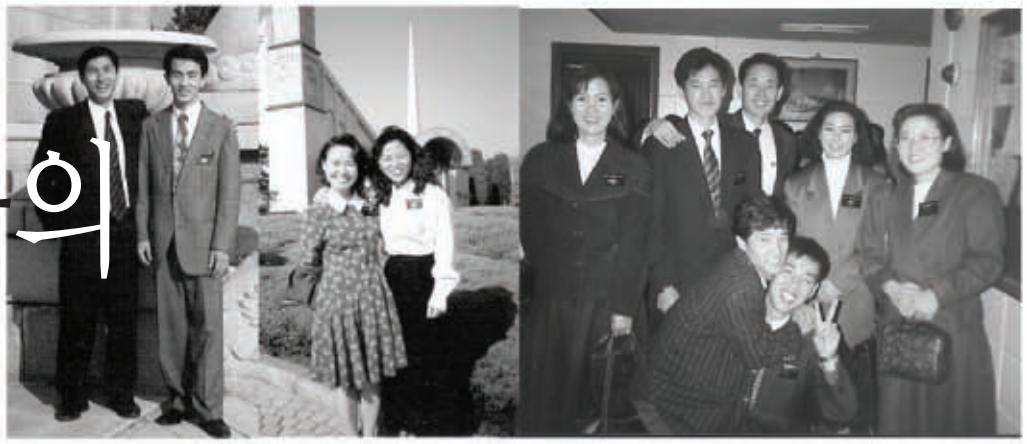
1. 감독 또는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초등회 창립 1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부모님들과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을 초대한다. 초청 방문객들에게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 기억 나는 활동, 당시의 초등회와 다른 점, 침례, 신앙개조, 초등회에서 배운 복음 원리 등과 같은 초등회의 경험들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경험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교실 밖에 대기했다가 어린이들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면 들어오게 한다. "이 사람은 초등회를 가장 최근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분은 7년 전에 초등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분은 햇님반을 가르쳤습니다", "이 분은 1950년에 초등회를 졸업했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노래를 배울 때 음악을 지도했습니다", "이 분은 매달 우리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등과 같은 힌트를 준다. 초청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 후, 어린이들에게 그 방문객이 좋아하는 노래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초등회 경험을 나누게 한다. 25년 후 초등회 150주년 기념 행사 때 열어 볼 타임 캡슐의 용기를 장식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돕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구세주를 따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적도록 한 후, 이름과 나이를 적어 타임 캡슐 용기에 넣게 한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와 지도자, 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후에, 타임 캡슐을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넘겨준다. 초등회와 초등회 어린이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초등회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들에 대해 느끼는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한다.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기억하라고 격려한다.

2. 반원 발표: 반원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했거나 외국에서 살았던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을 취재하도록 임무를 준다. 반원들이 다른 나라에서의 초등회는 어떤지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초등회가 얼마나 크며, 모임 시설은 어떤지, 어떤 활동을 즐겨 하는지,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는 무엇인지, 교회에 가려면 얼마나 가야하며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지, 교회 회원으로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반원들이 알아 본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발표하게 한다. 모든 어린이에게 손을 활짝 벌린 채색하지 않은 종이 인형을 준다. 어린이들에게 그 종이 인형들이 세계의 어린이들을 나타내도록 색칠하게 한다. 인형 뒷면에 구세주를 신앙으로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게 한다. 와드나 지부의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형들을 전시한다.

3. 구세주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어린이들에게 말하게 한다. 침례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낱말 스트립에 침례와 관련된 것들, 즉 **침례식에서 보는 것들, 경전에 나오는 침례 받은 사람, 사람들이 침례 받은 장소, 침례 관련 노래 가사,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의식들, 침례를 받을 때 하는 약속, 침례 받는 이유, 침례 성약을 존중하는 방법 등과 같은 것들을 적는다.** 어린이들을 몇 그룹으로 나눈다. 낱말 스트립 중 하나를 펼쳐, 첫번째 그룹의 한 어린이에게 그 안에 적힌 것에 해당하는 한 예를 들게 한다. 예를 들어, 침례식에서 보는 것들의 경우, 8세 어린이, 부모, 선교사, 흰옷, 물, 침례탕, 감독 또는 지부장, 증인, 연사, 음악 등이 될 수 있다. 각 그룹에게 돌아가며 그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씩 들게 한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다음 낱말 스트립을 펼쳐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그룹을 게임에서 탈락 시킨다. 나머지 그룹들은 게임을 계속하여 마지막 한 그룹이 남을 때까지 한다.다른 낱말 스트립들을 가지고 게임을 반복한다. 침례를 통해 받는 축복들에 대해 간증하고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

4.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하여: 각기 다른 종이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를 적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기도, 경전 읽기, 노래 부르기, 친구 돕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예언자를 따르기, 침례 성약 지키기 등을 적는다. 다른 종이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때를 적고 주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 부정직, 거짓말, 부모님께 불순종,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 초등회 공과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교회에서 뛰어 다니거나 소리침 등을 적는다. 그 종이들을 용기에 넣는다. 마태복음 15장 10~11절과 17~20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는지 토론한다.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하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지에 대해 토론한다. 마태복음 21장 12~13절을 사용하여, 성스러운 것에 불경한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차례로 용기에서 종이를 선택하여 구세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나 언짢게 하는 일들에 관해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게 한다. ■

즐겨 일하는 일꾼들의 이야기



맨왼쪽: 변창기 감독(왼쪽)과 정성우 감독(오른쪽)은 농아지부에서 동반자로 봉사했다. 가운데: 선교사 시절의 장순자 자매(왼쪽), 맨오른쪽: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원혜경 자매(맨 오른쪽)

봄이 한창 무르익어가던 지난 4월 11일, 서울과 대구에서 두 명의 감독이 부름을 받았다. 맑은 봄빛을 받으며 태어난 두 감독은 부부가 모두 한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귀환 선교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56년 9월에 이영범 형제가 한국 성도 최초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은 이래, 근 50년 동안 수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이라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해 왔다. 그동안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출된 선교사는 약 2,400명으로 현재에도 매달 예닐곱 명의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근래에는 미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부름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약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마친 귀환 선교사들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도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형제 중에 40% 정도가 귀환 선교사이며 앞으로 선교 사업을 경험한 신권 지도자는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변창기 감독과 부인인 장순자 자매, 그리고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정성우 감독과 부인인 원혜경 자매에게 직접 들어보자.

처음에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변창기 청년 시절에 제 주위엔 여러 귀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같은 독신이더라도 훨씬 훌륭한 신앙과 표준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 힘의 근원이 선교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연 중에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싹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신 때 개종했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항상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당시 대명 와드 전정신 감독님이 저에게 선교 사업을 강력하게 권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름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순자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록 저처럼 뭔가 진정한 참됨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우 저는 항상 감독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계셨기에 늘 저의 모든 일을 감독님과 상의했고 심지어는 공부가 안될 때도 감독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선교 사업을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며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원혜경 독신 성인이 되어 종교 교육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말씀과 간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결심하고 나갈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정성우 제대 후, 편찮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가야했기에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감독님은 가능하다면 선교사 기금을 100%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 일용직으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원혜경 제가 선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을 때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선교 사업을 떠날 때는 남아 있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창기 저는 선교사 추천서를 보낼 때 나이가 많고 말주변도 없고, 경전 지식도 부족한 저에게 부름장이 올까, 온다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훌륭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순자 저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변창기 한 사람이라도 더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시간들은 어느새 하나님과 제 자신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선교사 규칙은 저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켰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장선자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과 겸손을 배웠는데, 제가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복음 지식보다 더 필요했고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만 구도자를 찾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정성우 저는 18개월 동안 농아 지부에서 봉사했는데 그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수화를 빨리 익히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은 수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아 지부 회원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우리는 저활동이 되기 쉽상인데 농아 지부 회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자매 선교사와 함께 한 변창기 감독 가족(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이런 회원들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혜경 대전에서 봉사할 때 연세가 예순 다섯되셨던 한 자매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반신이 불편하고 마비된 얼굴 때문에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선교사들과 만나면 항상 경전을 읽고 경험하고 느낀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의 도움을 받아 종교 교육원에도 다니고 졸업까지 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을 보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직까지 튼튼한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선교 사업이라는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성우 저는 청운 와드 독신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과연 몇 분이나 경험하겠습니까. 모두들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바쁜 생활에 쫓겨 영이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잠시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사업 기간 2년 동안에는 24시간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아마 20년 동안 겪을 영적인 경험과 같을 양일 것입니다. 20년을 앞서 가는 이 일은 직장을 구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때 말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이 일을 꼭 하기를 권고합니다.

변창기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와드 일을 볼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 부름을 수행합니다. 선교 사업을 통해서 얻은 훌륭한 경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저의 훌륭한 방향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정성우 감독 가족(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장은 1980년대 초반에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길영권 스테이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금강산이 보이는 최전선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보이는 것은 하늘과 산뿐인 철책선에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부대에서 산능선에 전선을 묻는 작업을 했는데, 야전삽으로 잡초를 제거하다가 갑자기 뒷머리에 강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권아, 풀을 보아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전삽을 내려놓고 발 앞의 잡초를 걷었더니 불발한 폭탄이 보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곳에 위험 지역 표시를 하고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주님께 이런 소망을 기도했었습니다. "군대에서 무사히 제대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대 후에는 반드시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이 일이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일년 후, 상병이 되어서는 5미터 높이의 고가초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초소에 있는데 멀리 음식을 가져오는 부대원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그 때 난간이 부서지면서 저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를 잡기 위해 허우적거렸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몸이 한바퀴 빙글 돌면서 떨어지는데 땅이 부드럽게 출렁이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 하나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동료들은 제가 다치지 않은 것에 더 놀라워 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육백만불의 사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같은 장소에서 철모를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5미터 아래로 떨어진 철모는 땅에 부딪쳐 땡!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그 때 정말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표징이 되었고 말년 휴가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선교사 부름장을 써서 제대 후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동반자들과 함께 하면서 군대와 너무 다른 교회의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훈련을 받지만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과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며 분노를 잠재우고 겸손해지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께 선교 사업을 충실히 할테니 귀환 후에 합당한 반려자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자손 대대로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귀환 후 노량진 와드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지금 아내인 임영실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후 다시 만났는데 임 자매 역시 부산 선교부에서 귀환했을 때라 함께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저는 임영실 자매가 주님께서 보내신 반려자라는 느낌을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하여 2주 후에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84년 10월에 귀환했는데 11월 첫째 주부터 직장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소망이 꿈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임 자매와 결혼을 약속하며 저는 결혼 선물로 아무리 화가 나도 큰소리를 지르지 않고 항상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밤마다 5분씩 하늘을 보며 명상을 합니다. 또한 동반자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무엇이든 함께 협의합니다. 이러한 것은 선교사 규칙입니다. 그 때 배우고 기른 덕성입니다. 또한 임영실 자매와 저는 주님께서 저희를 키우신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함께 기도와 찬송을 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이 일들은 단순하지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손녀를 기쁘게 해 주려고 침례를 받으셨던 어머니는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자식들을 위하여 지금도 누워서 기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이 가치있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선교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 사업을 통하여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면 자손 대대로 그 영향이 미칩니다. 그 큰 축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한 영생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길영권 스테이크장과 임영실 자매

알파벳에 실려오는 기쁜 소식

영어 회화반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함께해 온 영어회화반은 선교사들이 하는 주요 봉사 활동이자 구도자들을 만나는 큰 창문이다.

국제 교류와 인터넷 사용이 흔해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함께 대화할 공용어로 영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영어를 선교사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열쇠로 사용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영어회화반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영어회화반은 한국 교회와 거의 역사를 함께하며 발전해 왔고, 현재 네 개의 선교부에서 140여 개의 영어회화반이 운영되고 있다. 영어회화반은 일반 영어회화반과 가족 영어 회화, 그리고 오전 시간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 영어 회화반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에서는 영어 성경 공부를 영어회화반 반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풍향 와드 영어회화반 성인반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의 권혜련 자매와 박준호 형제는 매주 선교사들과 영어회화반 준비 모임을 한다. 이들은 영어회화반에도 직접 참석하여 모임을 진행하고 반원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다. 권 자매와 박 형제는 와드에서 '영어회화반 코디네이터'라는 부름을 맡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영어회화반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돕고 반원들 가운데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선교사를 소개하고 회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영어회화반에 대한 선교사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풍향 와드에는 매주 50여 명의 이웃들이 교회에 모여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 권혜련 자매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한 이 부름에서 선교사가 된 기분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다가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볼 때는 정말 큰 행복을 느낍니다."라며 자신의 보람을 전한다.

부산 스테이크 호계 와드

경상남도 울산에 있는 호계 와드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회원 봉사 활동이 펼쳐진다. 와드에서 만든 영어회화반 광고지를 회원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호계 와드 회원들은 교회가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계동 주민들에게 영어회화반 등의 프로그램으로 친근하고 성실한 교회의 모습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영어 회화반 수업에서 자신의 간증을 영어로 전하며 무엇보다도 반원들이 영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꾸준히 영어회화반에 참석하는 반원들은 일반 영어 학원과 달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아서 매주 이곳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반원들은 또한 선교사들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에 존경심을 느낍니다. 웃고 장난을 치다가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진지하게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교회는 성실하면서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진실하고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특

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한다.

가족 영어 회화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시간에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는, 가정의 밤과 같은 시간이다. 서울 선교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복음을 받아들일 가족을 찾는 열쇠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 서울 선교부장인 칼슨 형제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칼슨 자매와 제가 2000년에 한국에 온 후 저희는 여러 와드의 영어회화반에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여러 지역의 영어회화반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원들이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거의 자매들과 그 자녀들입니다. 한국에는 더 많은 신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복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신권 지도자로 봉사하며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를 찾는 주요 열쇠인 영어회화반에는 거의 엄마와 아이들만 있고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낮에 거리 전도를 합니다. 우리에겐 보다 많은 형제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아버지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가족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가족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버지들과 접촉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영어회화반 반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그곳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자 아파트 단지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여러 가족이 선교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자 세 가족이 구도자가 되었고 그 중 한 가족은 침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취한 것은 여러 명의 훌륭한 아버지들과 접촉한 것입니다. 몇몇은 회복에 대해 배웠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양들을 돌보는 감독님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바쁜 한국인 남자들이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습관이나 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때때로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는 회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개종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그 결과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종인 선교사들과 친분을 갖게 될 때 선교사들이 보여 주는 희생과 진실함에 감동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곧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한국에 왜 오셨나요?" 또는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이러한 질문은 복음 토론을 시작하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할 길을 열어 줍니다. 선교사로서 우리의 목적은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어 반을 통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명의 훌륭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영어회화반은 선교사들이 펼치는 봉사 활동이자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이다. 우리의 이웃들은 이 시간에 선교사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영어로 진행되는 대화와 활동을 즐긴다. 대화와 활동은 반원들에게 교회의 문화와 선교사들의 모범을 전하는 좋은 그릇이 되어 복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가르쳐 준다. 실제로 반원 중 몇몇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이웃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많은 주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코디네이터로 봉사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영어회화반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다.

호계 와드 영어회화반 반원들

리아호나에 사랑을 싣고

"그 분들이 교회와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고 시작했죠."

천원짜리 지폐 다섯 장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회원들은 이웃에게 리아호나를 선물하는 일을 선택했다. 백 명이 조금 못되는 회원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의정부 와드에 매달 250여부 정도의 리아호나가 배달되고 있는 것이다.

몇달 전부터 성찬식에 참석하는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리아호나를 매달 1-2부씩 기증하기로 감독단과 약속하였고 이렇게 조금씩 모인 리아호나는 의정부 와드에 기록되어 있는 270여 명 회원들과 구도자들에게 증정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으로 그 동안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에 거의 모든 회원들이 리아호나를 보고 매달 지상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의 시발점은 5~6개월 전에 스테이크에서 열린 감독단 훈련 모임으로, 스테이크장단에서 리아호나를 활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감독단과 와드 회원들이 함께 의논하여 지도자의 권고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리아호나를 기증하면서 의정부 와드가 얻은 하나의 편리는 리아호나의 반송 여부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 방문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김규태 의정부 와드 감독은 이 활동을 계획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 "리아호나를 기증하는 일을 시작할 때 이 일로 저활동 회원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분들이 교회 소식을 꾸준히 접하고 교회와 어떤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소식

북아시아 지역 회장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이동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의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동한다. 지난 2000년 4월 1일, 제 170차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던 홀스트롬 장로는 3년간 동경에 머물며 북아시아 지역 교회의 발전에 힘써왔다. 홀스트롬 장로와 그의 가족은 지난 7월 5일에 서울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각 와드 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아시아 지역에서 보낸 지난 3년은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헌신적인 지도자들과 회원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한국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홀스트롬

장로는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중부의 여러 주를 관할하는 북미 중부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새로 부름받은 서울 선교부장-브라이언 셀러스

브라이언 셀러스 형제가 서울 선교부의 새로운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아 7월부터 아내인 애쉬 크로프트 셀러스 자매와함께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셀러스 선교부장은 콜로라도 주 마나사에서 출생하였으며 1960년부터 1963년까지 북극동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이 때 현재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닐슨 성전장과 함께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고 한다. 셀러스 선교부장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한 지 40년이 지나서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한국말로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셀러스 선교부장은 스테이크장과 감독, 그리고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한 바 있고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미국 솔트레이크 버틀러 스테이크 버틀러 12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교회 본부 자료 제공)

한민근 형제 교육부 장관상 수상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한민근 형제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시사영어 학원에서 동시 통역(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한 형제는 평생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했다. 한 형제는 성취 일변도의 교육 풍토와는 다르게 학생의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한다. 한민근 형제는 현재 서울 북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교회의 주요 모임에서 통역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남경희 기자)

광주 스테이크 여성 대회

"무엇보다도 봉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자매님들의 간증에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복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광주 스테이크가 지난 6월 28일, 여성 대회를 열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모로나이서 7:47)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스테이크장단이 중창 공연을 선보였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이웃에게 봉사하며 느꼈던 기쁨과 가정 방문, 개종을 주제로 간증을 나누었다.(기사제공 홍세라)

안양 스테이크 음악 세미나

안양 스테이크는 5월 24일, 음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초청 강사에게 지휘 할 때의 자세와 지휘 연습 기술, 지휘자의 역량에 대한 지도를 받고 리더쉽, 발성 자세, 호흡법에 대한 강의도 함께 들었다.(박라헬 기자)

몰몬경 간증 공모

2003년 10월호 리아호나에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시고자 합니다. 몰몬경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소감과 감상을 A4 용지 1쪽이나 200자 원고지 5~6매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우편 요금의 인상으로 리아호나 해외 운송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리아호나를 구독할 경우 항공 운송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이 21,000원에서 27,000원으로, 2지역(동남아시아)이 27,000원에서 30,600원으로,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이 35,400원에서 36,000원으로,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이 37,200원에서 54,000으로 인상되었고, 선박 운송료는 모든 지역이 14,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운송료는 2003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해외에서 리아호나를 구독하시는 분은 1부 기준으로 구독료 5,000원에 인상된 운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온누리 합창단 지휘자 워크샵

제1회 온누리 합창단 지휘자 워크샵이 지난 6월 29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에서 열렸다. 온누리 합창단의 주관 아래 열린 이 모임은 각 지역의 지휘자들을 훈련함으로써 교회의 음악 수준을 높이고 성찬식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우며, 각 스테이크 내에 중창단, 합창단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서울 각 지역 음악 지휘자와 남 스테이크 합창 단원, 각 스테이크의 중창 단원 등 60여 명의 회원들은 온누리 합창단 지휘자 강희영씨의 지도로 지휘자의 마음 자세와 발성법 및 음악적 이론을 배우며 지휘법을 함께 연습해 보았다. 또한 합창단 단장인 허병석 형제는 지휘할 때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고 인천 스테이크 부부 중창단 '위트니스'는 "조용한 숲속에서"와 "축복의 길" 두 곡을 발표했다.(황선아 기자)

노변의 모임

강릉 지방부는 6월 18일 강릉 지부에서 칼슨 선교부장(전임) 부부와 함께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서울 선교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칼슨 선교부장이 귀환을 앞두고 강릉 지방부 회원들과 고별의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칼슨 선교부장은 "강원도에 있는 작은 지부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로 자리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했고, 칼슨 자매는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통해 그들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을 보여준 한국 사람들은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김미숙 기자)

전임 서울 선교부 칼슨 선교부장 부부와 함께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강릉 지방부 회원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감독: 이재훈(전임: 김동완)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지부장: 조중현(전임: 최명엽)

제주 지방부
지방부장 이명훈(전임: 정홍전)
제주 지부 지부장: 좌훈탁(전임: 이명훈)
서귀포 지부 지부장: 윤성조(전임: 한민석)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64기 7명

김경진
대전 선교부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

백선주
서울 서 선교부
마산 스테이크
진주 와드

김민조
서울 선교부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이우림
대전 선교부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김지영
대전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진은하
서울 서 선교부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류근국
부산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